

연승 행진 KIA, 시즌 첫 스윕... 이제는 선두권 경쟁

20~22일 KT, 23~25일 삼성 격돌

두 팀 모두 연패로 분위기 침체
2위와 5경기 차... 9위와 3경기 차
맞붙는 3강... 중위권 싸움 극복을



호랑이 기운이 달라졌다. 시즌 초반 바닥에서 시작해 드디어 5할 승률까지 올랐던 KIA

타이거즈가 이제는 상위권 대열에 도전장을 내민다. KIA 선수단은 지난주 주간 승률 1위의 상승세를 이번주에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KIA는 지난주 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두산과 3연전을 스윕했다. 6경기에서 5승 1패로 주간 승률 1위를 기록하며 22승 22패·승률 0.500으로 3월 26일 이후로 처음으로 5할 승률에 복귀했고, SSG와 공동 4위까지 올라섰다.

KIA는 주축 선수인 나성범과 위즈덤이 각각 종아리 부상과 허리 통증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주 선전하며 8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타선의 분발 때문이다.

지난달 말 부상에서 복귀한 김도영이 팀 내 3번째로 많은 타점을 올리고 있다. '리드오프' 박찬호도 지난달 16일 0.171이었던 타율을 0.279까지 끌어올렸고, 4시즌 연속 10도루를 기록하는 등 KIA 공격에 힘을 싣고 있다.

베테랑 최형우는 주간 타율 5할대를 기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5-4 승리를 거둔 뒤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록한 데다 팀 내 가장 많은 안타와 2루타, 3루타, 타점 등을 생산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불안했던 불펜의 안정세도 한몫했다. 마무리투수 정해영은 한 주 동안 4차례 세이브를 수확하며 선동열(132 세이브)을 넘어서 KIA 역대 통산 최다 세이브 신기록(134세이브)을 달성하기도 했다.

KIA는 20일부터 수원에서 KT와, 22

일부터 대구에서 삼성과 총 원정 6연전을 치른다.

두 팀 모두 지난달 말 2위까지 올랐던 팀이지만 어린이날 이후 치러진 9연전부터 기세가 다소 꺾인 상태다.

5월 초 5연패에 빠졌던 KT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6패 1무로 부진하고 있다. KT는 20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이현 외에도 토종 에이스 고영표, 소형준, 쿠에

바스, 헤이스스 등 선발진과 김민수-원상현-손동현-박영현으로 이어지는 불펜진 등 강력한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지만 타선이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다. KT의 팀 타율은 0.244로 KIA와 같은 공동 7위이고, 팀 타점은 169점으로 리그 9위에 머물고 있다.

삼성도 어린이날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다.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46	30	16	0	0.652	0.0
2	롯데	48	28	18	2	0.609	2.0
2	한화	46	28	18	0	0.609	2.0
4	KIA	44	22	22	0	0.500	7.0
4	SSG	45	22	22	1	0.500	7.0
6	NC	42	20	21	1	0.488	7.5
7	KT	47	21	23	3	0.477	8.0
8	삼성	47	21	25	1	0.457	9.0
9	두산	46	19	25	2	0.432	10.0
10	키움	49	14	35	0	0.286	17.5

이달 초 8연패를 당했던 삼성은 가장 최근 롯데와의 시리즈에서도 스윕패를 당하며 시즌 초반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덧 리그 8위까지 추락했지만 팀 타율 2위(0.270), 팀 득점권 타율 1위(0.297), 팀 OPS(출루율+장타율) 1위(0.785) 등 타선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KIA로선 경계해야 한다.

KIA는 현재 공동 2위 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와 5경기 차 뒤져 있고, 9위 두산과는 3경기 차에 불과하다. 때문에 KIA의 이번주 6연전은 선두권 추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IA가 지난주 하락세를 보인 KT, 삼성을 상대로 각각 우세승을 기록한다면 중위권 싸움에서 한발 앞서 나가면서 선두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팀을 상대로 열세를 보이면 다시 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체육중, 전국소년체전 결단식

24일부터 나흘간 경남서
12개 종목 154명 출전

광주체육중학교가 19일 학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결단식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문종민 광주광역시체육회 부회장, 김민주 광주체육상연맹 회장,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인사와 선수 154명, 지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체육중은 24일부터 나흘간 경남

김해 등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12개 종목 154명의 선수와 임원 41명을 파견해 금메달 11개 이상, 총 31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탐방울의 결실을 얻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이번 대회에 총 32개 종목, 630명의 학생 선수를 파견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육중학교가 19일 학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레슬링부 김수형 학생과 배드민턴부 이윤서 학생이 대표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여할 것임을 선서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시청 윤태성,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선발

권유나도 여자부 태극마크 유력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윤태성은 지난 15~18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배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컴파운드 남자부 MQS(최소 자격점수) 678점을 충족했다.

윤태성은 이번 대회에서 컴파운드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그는 2025 세계선수권은 물론 2026년 장애인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도 확보하게 됐다.

같은 팀 권유나도 이번 대회에서 컴파운드 여자부 전 종목 석권하며 우수선수상을 수상, 태극마크 획득이 유력시된다.

권유나는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윤태성과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전에서는 서울과의 4강에서 147-147 동점 후 슈오프 승리, 결승전에서도 대전과 149-149 접전 끝에 슈오프 끝에 금메달을 따내는 등 극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장애인양궁팀은 김옥금에 이어 윤태성, 권유나까지 2025 광주 세계선수권 출전이 확정되거나 유력한 국가대표를 보유하게 됐으며, 홈 대회에서의 다관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동환 기자

전남 육상 선수단, 소년체전 사전경기 금 3·은 1·동 1개

김태빈 2관왕·이하은 2연패

전남체육 꿈나무들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 육상 선수단은 지난 17~18일 이틀간 경남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17일 여중부 멀리뛰기에 출전한 이하은(광양백운중 3년·사진)은 5m7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하은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김태빈(목포하당중 3년)이 14m2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태빈은 18일 원반던지기에서도 39m09를 던져 2관왕에 올랐다. 김태빈은 두 종목 모두 2년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전국적인 투척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트랙 경기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17일

달성했다.

이하은은 18일 세단뛰기에도 출전해 11m42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17일 여중부 포환던지기에서는 김태빈(목포하당중 3년)이 14m2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태빈은 18일 원반던지기에서도 39m09를 던져 2관왕에 올랐다. 김태빈은 두 종목 모두 2년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전국적인 투척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트랙 경기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17일

남중부 400m에 출전한 윤찬영(전남체중 3년)은 50초31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한편 전남선수단은 이번 소년체전에서 럭비를 제외한 35개 종목에 선수 748명, 임원 481명 등 총 1229명이 참가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본 경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사전경기부터 전남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본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체육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